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

강 남 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유수유는 아기,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은 물론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모유는 아기의 성장발육에 가장 적합한 영양공급원이며, 아기에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성분도 제공한다. 또한 모유수유는 아기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며, 어머니에게는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궁수축을 돕고, 자궁암이나 유방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발생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대한간호협회, 1996; Michels et al., 1996; Worthington-Roberts & William, 1989). 이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국민건강사업의 일환으로 'Healthy people 200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이 모유수유를 하도록 강력하게 방향제시를 한 바 있고, 민간인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모유수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모유수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모유수유 실천율이 상당히 낮고 인공수유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1960년대에 95%로부터 1970년대에는 46-69%, 1980년대에는 36-50%, 1990년대에는 24-35%정도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옥희, 권인수, 1991; 박인화, 황나미, 1994; 이경혜, 1992). 이렇게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로는 분유에 대한 과대선전,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부족 및 모유수유 실천의지 결여때문으로 밝혀졌다(김승조, 1990; 김화숙, 1991; 정귀영, 이근, 1983; 조미영, 1992).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모유수유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원으로 보고되고 있다(Beske & Garvis, 1982; Buckner & Matsubara, 1993).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어머니의 수유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으로 아기출생후 모유수유에 대한 아버지의 호의적인 태도가 모유수유를 시작하려는 어머니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Freed & Fraley, 1993; Freed & Fraley et al., 1992).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은 백인 어머니에게만 유용하다는 인종적 차이가 있으며(Baranowski et al., 1983) 아버지의 모유수유태도 역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rdan 등, 199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모유수유 과정에 영향한다는 외국의 선행연구결과를 받아들일 뿐, 모유수유에 대한 아버지의 관점을 어머니와 동등하게 연구대상자로 포함시킨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첫 아기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초산부

* 이 논문은 1998년도 건국대학교 지원에 의한 논문임(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1998)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에 관련된 기초자료수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초산부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 정도 및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올바른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태도형성으로 성공적인 모유수유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산부부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에 영향을 주는 조건변인을 확인한다.
- (2)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 정도를 사정한다.
- (3)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의 관계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모유수유 지식

모유에 관련된 정보를 회상해 내거나 기억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유수유방법 등 관련내용으로 구성된 척도상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요인, 감정요인 및 행동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척도상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관련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3) 모유수유 실천의지

초산부부가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척도상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의지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79년 모유수유 권장운동을 벌여 "모유수유는 영유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필수적이며 이상적인 수유방법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 정서적 발달에 바탕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UNICEF에서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운동(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을 시작하여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10단계를 정하고 현재 이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9개의 병원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3,000여개의 병원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으로는 La Leche League라는 모유수유 옹호단체가 현재 전세계 40여개국에 3,000여개의 지부를 두고 출판활동, Homepage 운영 등을 통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고, 1991년에는 국제 모유수유 운동 동맹(World Alliance for Breastfeeding Action, WABA)이 결성되어 모유수유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이근, 1998). 이러한 배경으로 구미선진국의 모유수유율은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의 이러한 적극적인 모유권장운동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실천 저해요인으로는 분만후 모아 분리, 병원 수유시간 등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격려 부족과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지도받을 기회부족 등이 요인으로 제시되었다(박옥희, 1992; 조미영, 1992). 또 다른 요인으로는 모유부족, 어머니의 직장생활, 어머니 질병 및 유방문제 등이 제시되었고,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의지력 부족과 지식부족, 그리고 모유수유 전문간호사 부족 등으로 밝혀졌다(오현이 등, 1994; 이미자, 1995; 이자형 등, 1994).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모유수유 교육, 모자동실 설치, 모유수유 전문간호사 배치 등 현실적인 환경조성이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김혜숙, 1995; 박옥희, 1992; 조미영, 1992). 또한 모유수유의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유수유교육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며 모유수유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은숙 1994; Grossman et al., 1990; Kaplowitz, Olson, 1983; Kistin et al., 1990).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산전에 실시되었을 때, 그리고 임산부와 배우자가 함께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비율과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ttle, Dewey, 1994). 특히 산후 1개월에 모유수유행위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 모유수유의지(Entwisle, Doering &

Reilly, 1982; Manstead, Proffit & Smart, 1983)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빈도와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획한 모유수유기간으로 지적되었다(Kistin et al., 1990).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수유부가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수유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Stashwick, 1994). 특히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로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모유수유의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변수자 등, 1994; Dusdicker et al., 1985).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들은 가족, 친구, 배우자와 대중매체 및 건강관리 제공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수유부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제시되어 있다(Beske, Garvis, 1982). 모유수유에 대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태도와 어머니의 모유수유 의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d & Fraley & Schanler, 1993; Freed & Fraley, 1993; Libbus & Kolostov, 1994). 즉, 아버지는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임신초기에 아기수유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예비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의 생리학적 측면은 물론 모유수유 대체물질의 위험 등 실제적인 면에 관하여 교육이 행해져야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유수유에 관해 아버지의 관점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진 적이 없으므로 좀 더 상세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개별면접을 통한 질문지법을 이용한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에 관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정상분만한 임신, 분만 및 산후합병증이 없는 25세에서 35세의 초산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모유수유 지식

모유수유 지식정도는 관련 문헌(김혜숙, 1995; 남은숙, 1994; 송지호 등, 1993)을 고찰하여 모유의 중요성, 수유자세 및 방법, 유방관리, 수면과 휴식, 영양 및 약물복용, 상호작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23문항의 자가평가도구이다. 신뢰도 검증결과는 어머니 지식척도 0.72, 아버지 지식척도 0.70였다.

2)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태도는 관련문헌(김혜숙, 1995; 남은숙, 1994; 변수자 등, 1994; 정혜경 등, 1993)들을 토대로 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5점척도의 20문항의 자가평가도구이다. 신뢰도 검증결과는 어머니 태도척도 0.88, 아버지 태도척도 0.92였다.

3) 모유수유 실천의지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실천의지에 대한 지지정도, 모유수유기간 및 수유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척도의 6문항의 자가평가도구이다. 모유수유 실천의지척도는 초산부부가 함께 의논하면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는 0.76였다.

각 도구의 Alpha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도구의 신뢰도

도구	문항수	점수의 범위	Alpha 계수
엄마지식	23	1-5	.7169
엄마태도	20	1-5	.8773
아빠지식	23	1-5	.6999
아빠태도	20	1-5	.9243
실천의지	6	1-7	.7571
모유계획	4	1-7	.9576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국내 종합병원에서 건강한 만삭아를 정상분만한 초산부부를 대상으로 분만 2-3일째에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대상자수는 110쌍이었으나 응답이 부실한 14명을 제외한 96쌍의 자료가 채택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 1) 1단계: 측정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사정과 본 연구에서 초점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유사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98쌍의 자료를 1차 분석하였다.
- 2) 2단계: 수집된 자료중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조건변인이 유사한 51쌍의 자료만을 2차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SPSS 7.5 version Kore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도구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 (2) 모유수유 지식, 태도, 실천의지정도에 영향을 하는 조건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group별 비모수 t-test, 비모수 ANOVA를 이용하였다.
- (3) 초산부부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정도를 각각의 척도를 점수화해서 평균치, 백분율 및 표준편차 등 서술적 통계를 산출하여 사정하였다.
- (4)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의 상관관계를 stepwise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사정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자료는 분만 24-48시간에 수집되었기 때문에 회상 바이어스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며 분만후 기쁨 등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단계 분석결과에서 모유수유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정도에 영향을 하는 조건변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 지식정도는 조건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 태도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어려서 어떤 수유방법으로 양육되었는가에 따라 ($F=2.793, p=0.23$)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유수유에 대한 아버지 지식정도는 분만전 책이나 잡지, TV를 통해서 모유수유가 좋다는 정보를 받은 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 태도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836, p=0.020$).

- 모유수유 실천의지는 분만방법($F=4.335, p=0.043$), 원했던 임신이었는가 여부($F=5.606, p=0.022$), 모유계획($F=0.503, p=0.001$), 친구나 주위친척이 아기에게 젓먹이는 모습을 본 경험유무($t=5.260, P=0.000$)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조건변인이 유사한 51쌍의 초산부부들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2단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 정상 질분만한 초산부부
- 자신이 어려서 모유수유로 성장한 초산모
- 원했던 임신이었던 초산부부
- 친구나 주위친척이 아기에게 젓먹이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는 초산부부
- 모유수유 관련정보를 얻은 적이 있는 초산부부
- 모유수유 계획이 있었던 초산부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25세부터 32세로 평균연령이 28.9세였으며, 아버지의 연령분포는 26세에서 34세로 평균연령은 31.3세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2개월미만이 13.7%, 12개월에서 36개월이 37.3%, 36개월이상이 49.0%로 나타났다. 종교상태는 어머니의 경우 64.7%, 아버지의 경우는 43.1%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어머니가 고졸 58.0%, 전문대졸 이상 42.0%였으며, 아버지는 고졸 35.6%, 전문대졸이상 64.4%의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주부가 58.8%, 직업이 있는 사람이 41.2%였으며 아버지들 경우 회사원 27.3%, 공무원 20.5%, 전문직 25.0%, 상업 27.3%였다. 출생한 아기의 성별은 아들이 56.8%, 딸이 43.2%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분류(구분)	초산모	초산부
		빈도(%)	빈도(%)
연령	25-29	28(54.9)	25(56.8)
	30-34	32(40.1)	19(43.2)
결혼기간	12개월 미만	7(13.7)	
	12-36개월 미만	19(37.3)	
	36개월 이상	25(49.0)	
학력	고졸	29(58.0)	16(35.6)
	전문대졸 이상	21(42.0)	29(64.4)

종교	유	33(64.7)	23(51.1)
	무	18(35.3)	22(48.9)
가족형태	대가족	3(6.7)	
	핵가족	42(93.3)	
직업	주부	30(58.8)	
	회사원	5(9.8)	12(27.3)
	공무원	4(7.8)	9(10.5)
	전문직	8(15.7)	6(13.7)
	사업	2(3.9)	12(27.3)
	기타	2(3.9)	12(11.3)
경제수준	상	8(15.9)	
	중	37(72.7)	
	하	6(11.4)	
아기성별	아들	25(49.0)	
	딸	26(51.0)	
결정시기	임신전	32(62.7)	39(77.8)
	임신초기	2(3.9)	4(8.3)
	임신중기	3(5.9)	2(2.8)
	임신말기	10(19.6)	2(2.8)
	분만직후	4(7.8)	4(8.3)
영향인	남편(아내)	15(29.4)	31(60.8)
	시부모	5(9.8)	9(17.6)
	친정어머니	14(27.4)	2(3.9)
	친구, 동료	2(3.9)	1(2.0)
	의사, 간호사	4(7.9)	2(3.9)
	기타	11(21.6)	6(11.8)
모유선택 이유	영양학적 우수성	32(62.7)	34(66.6)
	아기와 관계 증진	9(17.6)	14(27.5)
	가족지지	1(2.0)	0(0)
	본인의지	6(11.8)	3(5.9)
	전문가 권유	3(5.9)	0(0)

2. 초산부부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정도

(1)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초산부부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어머니 84.51, 아버지 83.94로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지식과 아버지지식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표 3〉 초산부부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정도

변수	초산모(어머니)		초산부(아버지)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식	84.51	8.70	83.94	7.35	-0.390	0.698
태도	76.37	11.34	80.82	12.21	2.236	0.030
실천 의지	34.23	5.90				
계획 정도	24.58	7.65				

그러나 모유수유지식에 관한 세부항목별 아빠와 엄마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부항목인 '수유할 때 먼저 한 쪽 엄마젖을 충분히 먹인 뒤, 다른 쪽 엄마 젖을 먹인다', '수유용 브래지어나 다른 편안한 유방 지지대를 착용한다', '엄마젖 먹이기전이나 후에 젖꼭지를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에 대한 응답에서 어머니 지식과 아버지지식사이에 유의한 부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표 3-1〉

	평균	표준편차	t	p
수유할 때 먼저 한 쪽 엄마젖을 충분히 먹인 뒤, 다른 쪽 엄마 젖을 먹인다	-.2941	1.0256	-2.048	.046
수유용 브래지어나 다 른 편안한 유방 지지대 를 착용한다	-.5098	1.5795	-2.305	.025
엄마젖 먹이기 전이나 후에 젖꼭지를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5882	1.4584	-2.880	.006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가 76.37, 아버지가 80.82로 어머니태도와 아버지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모유수유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모유수유태도의 세부항목중 '어머니젖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 '남 앞에서 어머니젖 먹이는 것은 창피하다', '어머니젖을 먹이면 아기가 어머니젖을 충분히 먹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 '어머니젖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점에서 부정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2〉

태도설문	평균	표준편차	t	p
엄마젖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 든다	-.6275	1.5094	-2.969	.005
남 앞에서 엄마젖 먹 이는 것은 창피하다	-.3922	1.3278	-2.109	.040
엄마젖을 먹이면 아 기가 엄마젖을 충분히 먹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	-.6667	1.6330	-2.915	.005
엄마젖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5098	1.5540	-2.343	.023

초산부부의 모유수유 실천의지는 18에서 42점 중 34.23을 나타내었고, 모유계획정도는 4점에서 36점중 24.58을 나타내었다.

(2) 모유수유 관련변수 특성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어머니의 경우는 임신전 62.7%, 임신말기가 19.6%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임신전 77.8%, 임신초기 8.3%, 분만직후 8.3%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유수유 결정시기 역시 대상자의 과반수가 임신전에 이루어진다는 결과는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송규희, 1989)에서 제시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렇듯 임신기간 중에 일찍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공적인 모유수유 준비과정으로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에 관한 사정은 모유수유 결정 및 실천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유수유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의 경우는 남편, 친정어머니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아버지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아내라고 응답하였다. 의사, 간호사라고 응답한 경우는 어머니 7.9%, 아버지의 경우는 3.9%로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의 권유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영향인으로도 순위가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저하된 이유로 의료인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부족 등으로 보고되었던 결과(김승조, 1990)를 여전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배우자, 부모, 친구, 의료인 등이 지지자로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이자형 등, 1994)와는 달리 간호사, 의사로부터의 정보제공 및 영향인으로서의 지지가 적다는 사실은 모유수유증진을 위한 보건전문인으로서의 역할확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나타내는 근거라 하겠다.

모유수유를 선택한 일차적 이유로는 초산부부 모두 영양학적 우수성 아기와 밀접한 관계증진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에 주로 몸조리를 도와줄 사람으로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지, 남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산후 몸조리를 도와줄 시기는 산후 3주까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주, 1주 순이었다. 지금까지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는 퇴원후 산후 1주 이내, 분만직후 병원에서 순으로 나타났다.

퇴원후 아기의 수유방법은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이지만 모유를 더 많이 먹인다 모유만 먹인다,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이지만 분유를 더 많이 먹인다, 모유와 분유를 반씩 함께 먹인다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모유수유 관련변수 특성

		특성	빈도	(퍼센트)
산후 몸조리를 도와줄 사람	남편	2	(3.9)	
	시어머니	11	(21.6)	
	친정어머니	33	(64.7)	
	친지	5	(9.8)	
산후 몸조리를 도와줄 시기	산후1주까지	4	(7.8)	
	산후2주까지	7	(13.7)	
	산후3주까지	38	(74.5)	
	도움을 받지못함	1	(2.0)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	분만직후병원에서	17	(33.3)	
	퇴원후산후1주이내	29	(56.9)	
	산후1-2주사이	1	(2.0)	
	산후3-4주사이	4	(7.8)	
퇴원후 수유방법	모유만 먹인다	17	(33.3)	
	모유>분유	23	(45.1)	
	모유=분유	3	(5.9)	
	모유<분유	8	(15.7)	
		51	100(%)	

3.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태도 및 실천의지의 상관관계

1)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아버지지식, 아버지태도, 어머니지식, 어머니태도정도간의 pearson상관관계 분석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태도는 어머니지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태도 및 실천의지의 상관관계

	어머니 태도	아버지 지식	아버지 태도	어머니 지식	실천 의지	계획 정도
어머니 태도						
아버지 지식	-.147					
아버지 태도	.274*	.522***				
어머니 지식	.522***	.167	.316			
실천 의지	.450***	-.098	.105	.184		
계획 정도	.802	-.265*	-.104	-.165	.373	

* : p<.05 ** : p<.01 *** : p<.001

2) 초산부부의 모유수유 실천의지정도

초산부부의 모유수유 실천의지는 모유계획, 어머니지식, 어머니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산부부 각각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실천의지와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지나 모유 수유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Dix, 1991)을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어머니가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 및 대처를 훨씬 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Tarkka, Paunonen & Laippala, 1999)는 선행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반복 연구를 통해 다시 검증해야 사실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태도형성으로 성공적인 모유수유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전략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초산부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정상분만한 초산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중 일반적 특성이 유사한 51쌍의 완전한 자료만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유수유 지식, 태도, 실천의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변인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지식정도는 조건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태도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어려서 어떤 수유방법으로 자랐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아버지지식정도, 아버지태도에서는 아버지학력, 직업, 수입, 친구나 주위친척이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본 경험유무, 종교, 모유수유 결정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만전 책이나 잡지, TV를 통해서 모유수유가 좋다는 정보를 받은 경험유무에 따른 아버지지식정도에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태도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실천의지는

분만방법, 모유계획, 친구나 주위친척이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본 경험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유수유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정도

초산부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의 각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아버지지식과 어머니지식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태도와 어머니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산부부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서는 아버지태도가 어머니태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유수유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의 상관관계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태도는 어머니지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실천의지는 모유계획정도, 어머니지식, 어머니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산부부 각각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실천의지와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1. 모유수유지식, 태도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나 사회적 요인들을 좀 더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파악하여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겠다.
2. 임산부들이 모유수유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산전, 산후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모유수유실천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체계적 교육, 상담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모유수유에 관한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1. 모유수유태도와 실천에 관해서 임신부터 분만기간동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2. 모유수유에 관한 전문지식 및 올바른 태도를 갖춘 모유수유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3.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모유수유증진 산전, 산후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김승조 (1990). 모유수유의 장애요인 및 대책, 모유권장 대책토론회. 소비자 문제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김화숙 (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및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5).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정도의 비교분석. 여성건강학회지, 1(2), 243-253
- 남은숙 (1994).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모유수유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간호협회 (1996). 모유수유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35(2), 25-34.
- 박옥희, 권인수 (1991). 산후 경과별 모유수유 실태. 모자간호학회지, 1(1), 45-57.
- 박옥희 (1992). 임신중 유방간호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2(1), 29-41.
- 박인화, 황나미 (1994). 모유수유 실태분석과 지원정책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송규희 (1989). 서울시내 일부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송지호, 김순애, 문영주, 박영주, 백승남, 변수자, 이남희, 조결자, 조희숙, 최미혜, 최양자 (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 이경혜 (1992). 국내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 이 근 (1998). 어머니젖먹이기의 경제성과 국제 활동. 1998년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45-51.
- 이미자 (1995). 모유수유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실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연구. 여성간호학회지, 1(1), 108-119.
-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모유수유 관련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요구. 간호과학, 6, 1994, 76-85.
- 정귀영, 이 근 (1983). 수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1), 1-7.
- 정혜경, 이미라 (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6-141.
- 조미영 (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 Baranowski, T., Bee, D., Rassin, D. K., Richardson, C. J., & Brown, G. N. (1983). Social support, social influence, ethnicity on the breastfeeding decision. Soc Sci Med, 17, 1599-611.
- Beske, E. J., & Garvis, M. S. (1982). Important factors in breast-feeding success. MCN, 7, 174-179.
- Buckner, E., & Matsubara, M. (1993). Support networks utilization by breastfeeding mothers. J Hum Lact, 9, 231-235.
- Dix, D. (1991). Why women decide not to breastfeed. Birth, 18(5), 222-25.
- Dusdicker, L. B., Booth, B. M., Seals, B. F., & Ekwo, E. E. (1985). Investigation of a model for the initiation of breastfeeding in primigravida rawomen. Soc Sci Med, 20(7), 695-703.
- Entwisle, D. R., Doering, S. G., & Reilly, T. W. (1982). Sociopsychological Determinanats of Women's Breast Feeding-An Uodate. Journal of Tropical Pediatrics, 37, 210-213.
- Freed, G., & Fraley, J. K. (1993). Effect of expectant mothers' feeding plan on prediction of fathers' attitudes regarding breastfeeding. Am J of Perinatol, 10, 300-303.
- Freed, G. L., Fraley, J. K., & Schanler, R. J. (1992). Attitudes of expectant fathers regarding breast-feeding. Pediatrics 1992, 90, 224-27, 1992
- Freed, L., Fraley, J. K., & Schanler, R. J. (1993). Accuracy of expectant mothers'

- predictions of fathers' attitudes regarding breast-feeding. J Fam Pract, 37, 148-52.
- Grossman, L. K., Harten, C., Sachs, L., & Kay, A. (1990). The effect of postpartum lactation counseling on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low-income women. Am J Dis Child 144, 471-474
- Kaplowitz, D. D., & Olson, C. M. (1983). The effect of an education program on the decision to breastfeed. J Nutr Edu, 15, 61-65
- Kistin, N., Benton, D., Rao, S., Sullivan, M. (1990). Breast-feeding rates among black urban low-income women : effect of prenatal education. Pediatrics, 86, 741-746
- Jordan, P. L., & Wall, V. R. (1993). Supporting the father when an infant breastfed. J Hum Lact, 9, 31-34.
- Libbus, M. K., Kolostov, L. S. (1994). Perceptions of breastfeeding and infant feeding choice in a group of low income mid-Missouri women. J Hum Lact, 10, 17-23.
- Manstead, A. S. R., Proffitt, C., & Smart, J. L. (1983).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Mother's Infant 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 : Test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 657-671.
- Michels, K. B., Willett, W. C., Rosner, B. A., Manson, J. E., Junter, D. J., Colditz, G. A., Hankinson, S. E., & Speizer, F. E. (1996). Prospective assessment of breast-feeding and breast cancer incidence among women. The Lancet, 347, 431-436.
- Position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 Promotion of breast-feeding.
<http://www.eatright.org/adap0697.html>
- Stashwick, C. A. (1994). Overcoming obstacles to breastfeeding. Patient Care, 28, 88-92
- Tarkka, M. T., Paunonen, M., & Laippala, P. (1999).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1), 113-118.
- Tuttle, C. R., & Dewey, K. G. (1994). Determinants of infant feeding choices among southeast Asian immigrants in northern California. J Am Diet Assoc 94, 282- 286
- Worthington-Roberts, B. S., & William, S. R. (1989). Nutrition in Pregnancy and Lactation. Mosby, St.louis

-Abstract-

Key concept: Breast milk feeding, knowledge, attitude, practice

Primiparous Couple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garding Breastfeeding

*Kang, Nam Mi**

Breastfeeding is an excellent way of feeding infants and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source of nutrition and antibodies for infants. Although breast-feeding is believed to be important, the rate of breastfeeding among Korean women is very low. One reason for the low breastfeeding rate is that the health professionals in the past have given little practical help couples to overcome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breastfeeding. The promotion of breastfeeding has recently become a high priority among health professionals because of the undisputed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and nutritional benefits.

Fathers have been found to influence the course of breastfeeding, but no one has conducted a systematic investigation into it and included fathers perspectives of breastfeeding in

* Departmen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Korea. It is important to find strategies to solve the problems by assessi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with fathers as well as moth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ways to promote primiparous (first child) couples' breastfeeding by assessing their general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it. More specifically its purposes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practice and the background factors of breastfeeding of primiparous couples in order to promote and support breastfeeding. The data will help health professionals to guide first-pregnancy couples to prepare and overcome any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breastfeed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both structur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referencing earlier literature, studies and surveys. This survey was made postpartum 2-3 days after childbirth on 96 couples. The numbers of subjects for data analysis were selected 51 couples through pilot screening test. Data were coded and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Cronbach's alpha coefficient, T-test, ANOVA, Stepwis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of breastfeeding,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breastfeeding were examined using 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instrument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The result was: mother knowledge 0.72, mother attitude 0.88, and father knowledge 0.70, father attitude 0.92, practice 0.76 and planning of breast feeding 0.95. The average age of mothers in the sample was 28.9 years old, and the average age of fathers in the sample was 31.3 years old. The other descriptive informations available included. The study also found that fathers were more important than doctors or nurses. However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father and mother knowledge of breastfeeding ($t=-0.39$, $p=0.698$), and father attitud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mother attitude of breastfeeding ($t=2.24$, $p=0.030$). In analysis, the variable 'practice' with breast feeding was the relationship with mother knowledge ($p=0.031$) and mother attitude ($p=0.015$).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one couple' knowledge and attitude was not significant.

Primiparous couples surveyed in the postpartum period regardi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bout breastfeeding might be affected by recall bias, the effects of the euphoria of the first 24-48 hours postpartum, but these variables were not examined. This study results add to the body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breastfeeding mothers and fathers. This indicates that a need for education about breastfeeding and, that fathers be included in it as well as mothers.